



‘설원의 마라톤’ 크로스컨트리

1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발디피에에서 열린 스키투어 크로스컨트리 남자 20km 클래식 경기에서 한 무리의 선수들이 언덕길을 힘차게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문호 개방...클럽간 친목·화합 앞장”

광주마라톤연합회 새 회장 고재빈씨

“광주지역 클럽간의 활발한 교류와 동호인 늘리기 등 마라톤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최근 광주마라톤연합회 7대 회장에 추대된 고재빈(52·광주달리기동호회장·삼성카드 사원) 회장이 취임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고 회장은 특히 “현재 4개 클럽(광주마라톤클럽·광주달리기동호회·첨단마라톤클럽·첨탑마라톤)으로 제한된 연합회 가입 회칙을 바꿔 다른 클럽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면서 “합동훈련 등을 통해 클럽간 친목 도모와 화합의 기회도 더욱 늘려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주마라톤연합회는 광주 마라톤클럽,

광주 달리기동호회, 첨단 마라톤클럽, 첨탑마라톤클럽 등 4개 단체가 ‘함께 달리며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뜻을 같이해 2004년 결성된 순수마라톤 동호회 모임이다.
4년전 친구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한 고 회장은 “마라톤하기 전에 78kg였던 체중이 지금은 71kg으로 줄었다”며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부지런한 생활을 하다 보니 모든 일에 자신감도 생겼다”면서 마라톤이 생활의 활력소임을 강조했다. 술 대신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터득한 그는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이면 매일 저녁 월드컵 보조경기장 주변 7km 정도를 달린다.



그간 쌓은 기량으로 폴코스를 13번이나 완주한 고 회장은 지난해 강진 울트라 대회에 참가해 10km를 완주하는 후원을 발휘하기도 했다.
광주일보 주최 3·1절 전국마라톤대회도 꾸준히 참가해 온 고 회장은 “3·1절 마라톤대회는 겨우내 쌓아온 기량을 선 보일 수 있는 첫 대회인 만큼 동호인들에게는 가슴 설레는 대회이다”면서 “주변 경관도 좋고 지루함을 느낄 수 없는 주변에서 손 편히 하는 명품대회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 회장은 “올해 대회에서는 폴코스 주자들을 위해 급수대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금 6개·2회 연속 ‘톱10’ 목표

■ 밴쿠버 동계올림픽 ‘한달 앞으로’

김연아·이규혁·이강석 등 막바지 훈련 박차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빙판과 설원을 누빌 태극전사들에게 지상 과제가 떨어졌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요란인 태동선수촌의 김종덕 운영본부장은 “이번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이상을 획득해 국가대표 중점선수 10위 이내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금메달 6개는 4년 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선수단이 획득했던 역대 최고 성적이다.
한국은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대회부터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으나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수확했다.
당시 쇼트트레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한국은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차지했고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에서 김연아(현 대한체육회 직원)이 역사적인 메달을 획득해 처음 종합 10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이후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땀과 1998년 일본 나가노에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차지했다.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는 김동성이 억울하게 금메달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로 성적에 다소 처졌지만 2006년 토리노에서 쇼트트레이 금메달 6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휩쓸었고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에서 이강석(의정부시청)이 동메달을 추가해 당당히 종합 7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17개, 은메달 8개, 동메달 6개 등 총 31개의 메달을 땀과 함께 쇼트트레이 제외하면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건진 은메달과 동메달 1개가 고작이다.
하지만 이번 밴쿠버올림픽에서는 한국 여자 레이스가 훨씬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20·고려대)가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 것으로 전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
김연아는 지난 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그랑프리 파이널까지 정복

하며 출전하는 대회마다 최고의 기량으로 최상의 연기를 펼쳤다.
국제빙상연맹(ISU) 오타바오 친판타 회장마저 “김연아가 실력의 85%만 발휘해도 올림픽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평가할 만큼 다른 경쟁자들보다 한 수 위의 기량을 자랑한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못지않게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에서도 첫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대표팀 ‘만형’ 이규혁(서울시청)은 올겨울 월드컵시리즈에서 3차례나 우승하며 최고의 스피드를 보였다.
이규혁은 앞서 출전했던 올림픽에서는 거듭되는 불운과 긴장으로 제 실력을 보이지 못했지만 이번 만큼은 기록면에서 가장 앞서 있어 마지막 올림픽을 화려한 금빛 메달로 장식하겠다는 각오가 남다르다.
토리노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이강석도 기대주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최다종목이었던 쇼트트레이는 4년 전보다 대표팀 전력도 다소 처진다는 분석이다.
확실한 간판 에이스가 없는 쇼트트레이는 여자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20·고려대)가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 것으로 전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
김연아는 지난 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그랑프리 파이널까지 정복

목포서 ‘꿈나무체육대회’ 열린다

市·교보생명, 7월 개최 협약 체결

목포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합체육대회인 ‘제26회 교보생명꿈나무체육대회’를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교보생명보험사와 중앙경기개발단체가 주최하는 이 꿈나무체육대회는 1985년 시작된 이후 박태환(수영), 이형택(테니스), 안현수(쇼트트랙), 이원희·최민호(유도) 선수 등 200여 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한 최고 권위 대회로, 육상과 수영, 탁구, 유도, 테니스, 체조 등 6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26회 대회는 7월 24일부터 8일간 목포체육관에서 열리며, 선수와 임원, 가족 등 모두 5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오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교보생명보험과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배구 김연경 27득점 팀 3-1 승리 이끌어

일본 프로배구에서 활약하는 김연경(22·JT 마블러스)이 새해에도 어김없이 고공 강타를 터뜨렸다.
김연경은 9일 일본 오카야마현 종합체육관에서 벌어진 일본 V-리그 2라운드 첫 경기 오카야마 시걸즈와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양팀 선수 중 가장 많은 27점(공격 25점, 블로킹 1점, 서브 득점 1점)을 올리며 JT 마블러스의 3-1 승리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골프 천국 전남으로 오세요”

도, 함평 다이내스티 등 21곳 소개 책자 발간

전남 골프장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는 어디일까. 이국적 클럽하우스와 색다른 서비스 등이 차별화된 골프장은 어디로 가야할까.
전남도는 10일 지역 내 유명 골프장 21곳과 인근 관광지, 먹거리 등을 소개한 ‘내마음속의 휴일원’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책에는 도내 골프장 21곳의 자세한 설명과 코스 특징 등이 담겨있다. 지역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 맛집과 둘러볼만한 명소 등을 엄선해 정리한 정보와 꽤 알차다.
함평다이내스티CC의 경우 서해안고속도로에서 5분 거리에 있어 수도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골프코스. 전세게 200여개의 명문 골프코스를 설계한 Ronard Fream의 자연을 잘 살린 친환경적인 골프장으로 소개했다.
담당다이내스티CC는 추월산 자락 120m 고지에서 이국적인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코스, 능선으로 여유롭게 있고 트러블 요소를 극대화해 초보자도 쉽고 편안하게 라운딩을 할 수 있는 코스도 각각 부각되는 점 등을 강조했다. 창평CC의 경우 부각되는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퍼블릭 골프장이라는 게 특징.
책은 이의 지역 골프장의 그린피가 수도권에 비해 30% 정도 저렴하다는 점과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로 라운딩을 하는 데도 부담이 없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 골프를 친 뒤 인근의 가볼만한 곳과 먹고 먹을만한 음식점 등도 함께 수록해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장미란 추돌사고 입원 큰 부상은 없어

역도선수 장미란이 9일 오후 추돌사고를 당했지만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후 8시경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의 한 아웃렛 앞에서 장미란이 탄 톨스타바겐 차량이 옆모(여)씨가 몰던 산타모 차량에 뒤를 받았다.
이 사고로 장미란은 경찰차로 인근 병원에 후송됐으며, 큰 부상은 없지만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 농지(대지/서구 마북동), 5355㎡(생산농지) 매매가 ㎡ 당 43만원
- 대지(북구 용봉동), 408㎡(현내대지) 매매가 ㎡ 당 80만원
- 물류창고(광안구 신촌동 송정 초등학교), 848㎡ 매매가 8억

상가건물(롯데백화점 인근, 현 성업동) 대 453㎡ / 건 2011㎡(사무나+원룸21실+주방) - 수익률 15%이상 매매가 20억(실정 10억, 조정가)

▶ 상가건물(광안동 여객선터미널옆) 대 260㎡ / 건 989㎡(상가+도움19실+주방) 수익률 아주 좋을 매매가 10억(조정가)

토지(광주호상동-가든식당, 과수원, 인아) - 34.830㎡ 매매가 3.3㎡ 당 12만원(분할가)

▶ 농지(무안군 운남면) 23.800㎡(바닷가, 계획관리지역) 매매가 3.3㎡ 당 20만원

대지(신촌동) 764㎡(버스승강장정, 전철역 5분거리) - 매매가 ㎡당 36만원(원룸, 빌라, 물류창고적합)

▶ 고시빌(전대후문 체육공원 인근) 대 282㎡ 건 560㎡ (최근준공) 총52(물당 월임대료 23만원) 매매가 8억5천

대지(북구 신안동) 402㎡(물류창고최적) - 매매가 3.3㎡ 당 150만원

▶ 농지(전.담양군 금성면) 883㎡ (관리지역) 매매가 3200만원(조정가)

농지(충효동-광주호상동) 전 1,927㎡ - 각종 시설수 100여 주식제, 매매가 ㎡당 9만5천(가격조정가)

▶ 가든식당(칠곡산국립공원 인근) 7,685㎡ 식당, 숙박업, 탄탄주점, 체육시설, 농장 모던시설 허가 필 - 매매가 3.3㎡ 당 32만원

경매부동산상당, 대출상당, 각종부동산투자상당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①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1.21.(목) ~ 2010.01.26.(화) / (총 6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규광관 3층 305호

②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개발업 3년 종사) 건축사, 건설기술사(고급) 특급, 전문경영관리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석사학위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공·지방공단, 금융기관중 개발 업무 관련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③ 교육비 : 67만원(교재 및 점심식사 제공, 강의를 사후한 이후 환불은 불가)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a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문의/전화 www.grad.kr
• 원장 이명규 교수 062)670-2421 •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 부원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1.062)233-3117

해령법률경제

T.062)430-7117 H.P.011-629-0827 김법정 위치:법원정문앞

속박사실(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지적 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광안구	북구	881/845	592㎡	3400만	11억 1천여
	남구	508/192	198㎡	1100만	3억 6천여
	남구	382/588	144㎡	500만	1억 4천여
북구	북동동	174/727	119㎡	300만	8천여
	북동동	303/586	49㎡	200만	5천여
	아사시	301/745	89㎡	200만	5천여
동구	동구	206/278	195㎡	800만	2억 2천여
	동구	212/568	200㎡	1000만	2억 6천여
	동구	174/727	119㎡	300만	8천여

관세사실(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지적 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북구	북동동	536/1583	1252㎡	7100만	21억 2천여
	남구	320/1188	169㎡	4300만	12억 8천여
	남구	467/1858	135㎡	4200만	12억 2천여
남구	남동동	284/828	78㎡	4900만	14억 2천여
	남동동	388/798	53㎡	3800만	11억 2천여
	남동동	411/947	49㎡	3500만	10억 2천여
동구	동구	680/1159	492㎡	2900만	8억 5천여
	동구	985/878	491㎡	1950만	5억 6천여
	동구	182/485	454㎡	2900만	8억 5천여
북구	북구	781/944	592㎡	3500만	10억 2천여
	북구	878/944	491㎡	1950만	5억 6천여
	북구	238/303	19㎡	700만	2억 1천여

관세사실(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지적 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북구	북동동	81/28	298㎡	1500만	4억 5천여
	북동동	43/15	159㎡	1500만	4억 5천여
	북동동	61/38	49㎡	200만	5천여
남구	남동동	182/202	297㎡	1900만	5억 5천여
	남동동	35/15	298㎡	1900만	5억 5천여
	남동동	25/18	49㎡	200만	5천여
북구	북동동	88/22	85㎡	500만	1억 4천여
	북동동	288/146	49㎡	200만	5천여
	북동동	486/74	49㎡	200만	5천여

관세사실(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지적 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북구	북동동	885/114	19㎡	600만	1억 7천여
	북동동	485/178	298㎡	1900만	5억 5천여
	북동동	138/178	19㎡	600만	1억 7천여
남구	남동동	117/258	159㎡	4900만	14억 2천여
	남동동	680/1159	492㎡	2900만	8억 5천여
	남동동	132/78	69㎡	3800만	11억 2천여
북구	북동동	254/164	195㎡	1900만	5억 5천여
	북동동	781/944	592㎡	3500만	10억 2천여
	북동동	878/944	491㎡	1950만	5억 6천여
남구	남동동	387/142	298㎡	1900만	5억 5천여
	남동동	1385/140	592㎡	3500만	10억 2천여
	남동동	384/228	298㎡	1900만	5억 5천여
북구	북동동	688/748	491㎡	1950만	5억 6천여
	북동동	221/88	195㎡	4900만	14억 2천여
	북동동	881/88	195㎡	4900만	14억 2천여
북구	북동동	51/74	49㎡	200만	5천여
	북동동	888/148	491㎡	1950만	5억 6천여
	북동동	255/58	491㎡	1950만	5억 6천여
남구	남동동	653/77	195㎡	4900만	14억 2천여
	남동동	572/8	89㎡	3800만	11억 2천여
	남동동	4836	391㎡	1900만	5억 5천여
북구	북동동	2396	191㎡	1900만	5억 5천여
	북동동	8824/2810	592㎡	3500만	10억 2천여
	북동동	885	891㎡	6940만	20억 2천여

관세사실

지역	소재지	지적 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북구	북동동	572/8	89㎡	3800만	11억 2천여
	북동동	4836	391㎡	1900만	5억 5천여
	북동동	2396	191㎡	1900만	5억 5천여
남구	남동동	8824/2810	592㎡	3500만	10억 2천여
	남동동	885	891㎡	6940만	20억 2천여
	남동동	572/8	89㎡	3800만	11억 2천여